

보건산업체 개방형 혁신 촉진지원 사업 제안

충북대학교 의생명과학경영융합대학원 석사과정 조형철
충북대학교 의생명과학경영융합대학원 교수 손호선
충북대학교 의생명과학경영융합대학원 교수 이영성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의 고도화 및 세계화는 내부 역량만으로 연구 개발에 의존하던 기업들에게 지속적 혁신을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기술혁신 역량을 활용, 협력과 성과를 공유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패러다임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개방형 혁신에 따른 IP분쟁과 수익배분 문제, 권리귀속 문제, 경험부족 등으로 아직 국내 개방형 혁신의 도입은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성과를 선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보건산업계에서 개방형 혁신은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실제 업체 간이나 연구기관 등에서의 개방형 혁신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과 보건산업 기관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 개발기술, 참신한 아이디어, 외부 기술의 융합,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 혁신 주체들 간의 개방형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부기관의 공적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이에 따른 전략 및 기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주제어 : 개방형 혁신, 창조경제, 보건산업, 혁신지원을 위한 공적역할
